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한국과 일본의 초기 근대기의 서구양식 수용방식의 차이 - 석조전과 표궁전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eption of Western Architectural Styles in Early Modern Korea and Japan

- A Case Study of Seokjojeon and the Front Hall(Hyōkeiden) -

○김 정 민* 이 연 경** 이 상 윤***
Kim, Jeong-Min Lee, Yeon-Kyung Lee, Sang-Yun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how the Korean Empire and Meiji Japan adopted and utilized Western architectural styles within their royal palaces during their transition to modern nation-states. Focusing on Seokjojeon in Deoksugung and the Front Palace of the Meiji Palace, the research examines how architectural expression and political context visualized each nation's modernization strategy and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키워드 : 초기근대, 근대국가, 서구건축양식, 덕수궁, 석조전, 메이지궁전, 표궁전

Keywords : Early modern, modern nation-state, Western architectural styles, Deoksugung Palace, Seokjojeon, Meiji Palace, Hyōkeide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건축은 국가의 권위와 위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매체로 기능해왔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 열강의 압력과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구 문물을 수용하였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자주적 근대화를 지향하며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는 국가 권력의 상징적 중심 공간인 왕궁의 건축에도 반영되었다(신명호, 2014, p.19). 이러한 변화는 근대국가의 위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수반되었다. 이 시기 한국과 일본은 왕실 공간 내에 서양식 건축물을 도입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양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통 권위의 상징인 궁궐 공간에 이질적인 서구양식을 병존함으로써 새로운 근대적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이 근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궁궐이라는 전통적 공간 구조 속에 서구양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적용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한제국과 메이지 일본이 서구 건축양식을 수용한 맥락과 그 동기를 규명하고, 양국의 초기 근대 건축의 형성과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두 국가가 서구 건축양식을 어떠한 정치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용하였는지 그 동기를 분석한다. 둘째, 덕수궁 내 석조전과 메이지궁전 내 표궁전을 중심으로 건축적 특징과 내포된 상징성이 각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정치적 목적에 어떻게 부응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한 한국과 일본의 상징적 권력 공간에서 나타난 건축적 수용 양상을 이론적 틀 속에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건축을 통한 국가 정체성 형성과 근대화 전략의 함의를 밝히는 것을 본 연구의 최종적 목적으로 삼는다.

1.3 사례 선정 기준 및 비교 방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자주적 근대화를 시도한 대표 국가로 설정하고, 양국이 전통 권위의 상징 공간인 궁궐에 서구 건축양식을 도입한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대한제국은 1897년, 메이지 일본은 1868년에 각각 국가명을 개칭하며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 궁궐이 아닌 새로운 궁궐로 이전하였다. 두 국가는 전통 궁궐 계획 내에 서구 건축양식을 도입해 국가적 권위와 근대성을 대내외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제국의 덕수궁 내 석조전과 메이지 일본의 메이지궁전 내 표궁전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였다.

* 연세대 대학원 석사과정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angyunl@yonsei.ac.kr)

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초기 근대 건축에서 서구 건축양식의 수용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지향한 근대국가의 의미와 시각화 방식을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초기근대의 개념과 배경

19세기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되고, 기존의 왕정 중심 사회에서 근대국가 체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서구 열강들은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어, 자국의 위상을 과시하고자 했다. 한국과 일본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두 나라는 ‘쇠로 된 배’라는 새로운 존재의 출현으로 기존의 동양 사상적 체계가 흔들렸으며, 서양 세력으로부터 개방과 통상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일본은 1858년 미국과의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며 개항되었고, 한국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격변 속에서 등장한 동아시아의 ‘초기 근대’는 자주적 근대화를 모색하는 국가적 실험의 시기로 평가된다.

2.2 동아시아의 문명관과 서구 수용 사상

오랜 기간 동아시아의 중심 세력이던 청이 1839년 아편 전쟁에서 서구 열강에 패배한 사건은 동아시아 각국의 세계관과 서구 인식의 변화에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안상윤, 2019, pp.41-70).

조선은 오랜 사대관계를 맺어온 청을 기준으로 서구를 오랑캐로 간주하며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강화하였으나, 일본은 네덜란드를 통해 서구 학문을 수용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였다. 양국 모두 쇄국정책을 유지하였지만, 서구 문명에 대한 대응 전략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정체성과 정신을 유지하려는 사상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건축양식의 수용 방식에도 반영되어, 양국에서 정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체적으로 변용하였다.

3. 초기근대건축으로서의 석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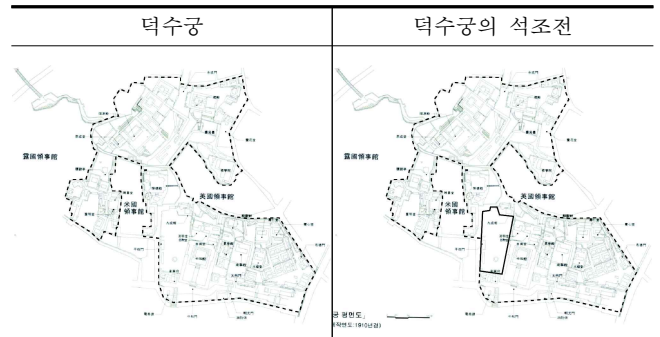
3.1 덕수궁과 석조전의 조성 배경

조선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를 본격적으로 맺기 시작했다. 덕수궁이 위치한 정동 지역은 경복궁과 서대문에 인접하여, 서양인들이 자리 잡기 적합한 환경으로 외국 공사관, 교회, 선교사들의 거주지가 밀집하며 도시 공간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종과 메이지의 시대, p.439).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여 근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전통 궁궐이 아닌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를 개보수·확장함으로써 왕실 질서를 재정비하고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덕수궁, p.30). 덕수궁은 도성 내 시가지화가 완료된 후 조성된 도심 궁궐로, 인접한 민가와 외국인 거주지를 매입하여 궁역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전통적 궁궐 조성 방식과 구별되는

근대적 도시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덕수궁, p.70).

표 1. 덕수궁 전체 평면 내 석조전의 공간적 범위



출처: 문화재청. (2005). 필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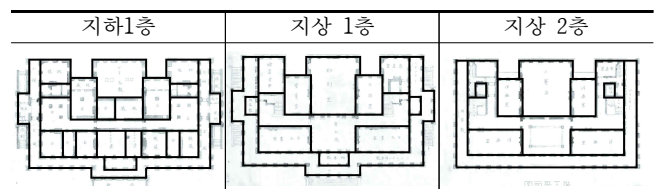
3.2 석조전의 건축적 특징

석조전은 덕수궁의 중화전 북서측에 위치하며, 1900년에 착공되어 1910년에 완공되었다. 건축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이었던 브라운(John McLeavy Brown)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으며, 영국인 하딩(J.R. Harding)이 기본 설계를 담당하고, 내부 설계는 같은 영국인 건축기사 로벨(Lovell)이 맡아 진행되었다(이향우, 2023, p.205). 창호와 전등은 크리스탈사(Critall&Co.) 제품이 사용되었고, 내부 가구는 모두 영국 메이플사(Maple & Co.)에서 조달되었다(김윤희, 2014).

‘석조전’이라는 명칭은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으로, 전통적으로 목재와 흙을 주재료로 삼던 조선 건축과 달리, 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한 이 건물의 건축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는 대한제국이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의지를 반영하며, 서양의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건물은 정면 54미터, 측면 31미터, 총 3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기단 위 열주와 박공지붕을 갖춘 전형적인 서양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다(이향우, 2023, p.208). 1,2층에는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식민지 스타일(Colonial Style)의 건축적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An, 2013).

1층에는 중앙홀, 황제 접견실, 귀빈 대기실이 배치되어 대한제국 황실의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2층은 황제와 황후의 침실과 서재 등 가족 중심의 사적 공간으로 구성되었다(이향우, 2023, pp.216-238). 이는 전통 단층 궁궐 건축과 달리, 다층 구조를 통해 편전과 침전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고종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통 궁궐에서 시종들의 공간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던 반면, 석조전은 지층에 시종의 공간을 배치하여 하나의 건물 안에 다양한 기능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안창모, 2009).

표 2. 석조전 평면



출처: 자료: 문화재청.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2011. (1936 도면에서 필자가 재구성)

석조전은 전체적으로 서양 왕실 궁전의 개념과 실내 장식, 가구 배치 방식이 적용된 건축물로, 조선 전통 건축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간 구조와 미적 체계를 지니고 있다(김윤희, 2014).

3.3 석조전의 상징성과 위상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재편되며 정동 도심부에 자리한 도심궁궐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전통 권위 공간과 도시 행정 중심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국가 중심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전략이었다(An, 2013).

석조전은 외관, 실내 장식, 가구, 의례 방식까지 서구 왕실 문화를 기반으로 계획되었으며(김윤희, 2014), 단순한 외형적 모방을 넘어 근대국가 운영 체계에 부합하는 기능적·상징적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정동의 도심 입지와 결합된 석조전의 구성은 대한제국이 지향한 근대 질서와 국가 위상을 시각적으로 매개하였고, 근대국가로의 이행 과정에서 건축이 수행한 정치적 매개 역할을 보여준다(안상윤, 2019,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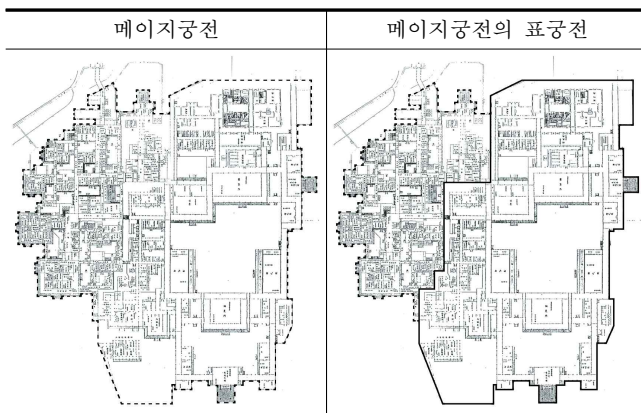
4. 초기근대건축으로서의 표궁전

4.1 메이지궁전과 표궁전의 조성 배경

일본 사회는 근대 기술 문명의 위력을 느끼고 개국을 결심하여, 1858년 미국과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며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막부체제를 종식하고 천황중심의 중앙집권적 근대국가 체제를 수립하였다(신명호, 2014, pp.82-88). 이어 메이지 정부는 교토에 거주하던 천황을 복고하여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여 새로운 정치 중심지로 삼았다. 에도성 터에 황궁을 조영하고, 두 개의 해자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무라이 주거지를 도시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근대화의 의지를 표명하였다(Ishikawa, n.d.).

메이지궁전은 천황의 사적공간인 오쿠궁전을 전통양식으로, 공식 접객과 공무 수행을 위한 표궁전을 서양식으로 구성하였다. 표궁전은 근대 군주로서의 천황의 위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메이지 정부가 구상한 근대국가의 궁전 개념과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山崎, 2004).

표 3. 메이지궁전 전체 평면 내 표궁전의 공간적 범위



출처: 小野木重勝. (1988). (pp.50-51에서 필자가 재구성)

4.2 표궁전의 건축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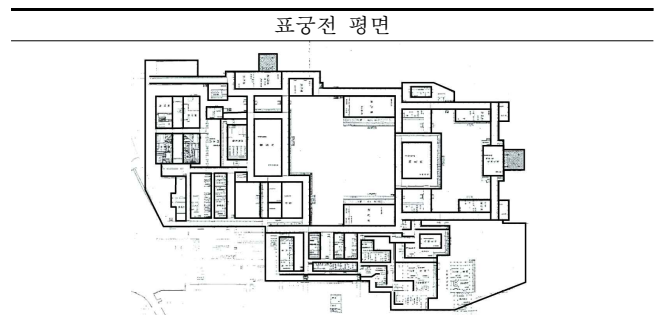
표궁전은 메이지궁전의 동쪽에 위치하며, 1879년에 황궁 정전 건축을 착수하였고, 1896년 완공되었다. 건축은 당대의 저명한 외국인 고용 건축가인 조사이어 콘더(Josiah Conder)에게 설계를 위탁하였으며, 표궁전은 당시 궁내정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 博文)의 역할과 신정부의 사고방식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山崎, 2003). 메이지궁전의 조명은 도쿄 기립공상회사(東京起立工商會社)의 제품이 사용되었으며, 가구는 독일의 칼로데상회(Karl Rohde Company)에서 수입되었다(小野木, 1988).

메이지궁전은 총 17개 공간으로 구성되며, 제1공간부터 제14공간까지는 천황의 공식활동과 연회, 업무 등을 담당하는 표궁전 영역에 해당한다. 전체 건물의 연면적은 약 20,000㎡에 이르며, 이 중 표궁전의 면적은 약 6,844㎡로 추산된다. 건물 외곽 규모는 정면 약 100미터, 측면 폭 약 90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면구조는 기능별 공간이 단층으로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明治工業社, 1937).

표궁전 남측에는 바샤즈메쇼(馬車詰所)라는 정문과 마차 대기 공간이 있어 정문 기능을 한다. 좌우에는 우메노바(梅の間), 다케노마(竹の間), 마쓰노마(松の間) 등의 대기실과 응접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 공간은 접견 전 귀빈이 대기하거나 소규모 회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각각 매화, 대나무, 소나무에서 유래한 전통적 상징성을 지닌 명칭을 통해 격식 있는 공간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궁전 중앙부에는 표어좌소(表御座所, 오모테 고자쇼)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천황이 외국 사절이나 고위 관료를 공식적으로 접견하거나 제국 헌법 선포와 같은 국가적 의례를 집행하던 핵심 공간이다. 해당 공간의 면적은 약 1,107㎡로 계획되어, 표궁전 내에서 상징성과 기능적 중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明治工業社, 1937).

메이지궁전은 일본 전통의 궁정 건축양식인 화풍과 서양 건축양식인 양풍을 절충한 방식으로 설계된 대표적 화양절충 건축물이다. 구조적으로는 콘크리트 및 벽돌 기초를 채택하고, 지붕은 구리 판장으로 마감하여 내구성과 미관을 확보하였다. 외관은 일본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설비와 장식에는 근대적 기술과 서양 조형미가 반영되었다(小野木, 1988).

표 4. 표궁전 평면



출처: 小野木重勝. (1988). (p.50에서 필자가 재구성)

4.3 표궁전의 상징성과 위상

메이지 초기의 일본 건축은 서구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근대국가로의 이행을 시각화하였으나, 1880년대에는 자국의 전통 요소를 융합한 ‘화양절충’ 양식으로 전환하였다(內田, 2013). 특히, 쇼군 권력의 상징인 에도성터에 황궁을 조성한 것은, 에도 막부의 종말과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건축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의 정당성과 권위를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Perry, 1977).

메이지궁전은 ‘새로운 국가 만들기’의 상징으로서, 서양식 궁적 영역과 전통식 사적 영역을 절충적으로 구성하여 국제사회에서 근대국가로 인정받고자 했다(內田,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메이지궁전은 단순한 양풍의 도입을 넘어, 전통을 절충적으로 수용한 정치·시대 전환기의 상징적 건축물로서 의미가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대한제국과 메이지 일본이 근대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궁궐 내 서구 건축양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석조전과 표궁전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양국은 모두 근대화를 시각적으로 표출하고 정치적 권위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서구 건축양식을 도입하였으나, 그 수용 방식과 공간 구성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석조전은 기존의 단일 단층 건물로 구성되는 전통 궁궐 법칙에서 탈피하여, 다층 구조의 건물로 건물 내 기능과 역할을 통합하였다. 또한, 전통 목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서구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고전적 비례와 입면 구성을 따랐다. 이는 고종이 국제사회에서 근대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며, 궁궐 내에서 서구 건축이 차지한 위상의 상징적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표궁전은 일본 전통 궁정 건축의 배치 원리를 유지하면서, 화양절충이라는 건축 전략을 통해 전통과 서구 양식을 혼합하였다. 표궁전은 단층의 수평적 평면 구성과 전통 목구조 공법을 유지하면서, 기초 공법, 내부 공간의 장식, 지붕 구성 등에 있어서는 서구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막부 권위의 공간 위에 새로운 황궁을 조성함으로써, 정치 체제의 전환을 건축적으로 시각화하였으며, 절충적 수용을 통해 자국 정체성의 계승을 통한 연속성과 근대화의 병존을 동시에 모색한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두 궁전은 모두 근대 건축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권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외형의 단절적 변화를 선택한 반면, 메이지 일본은 전통과 서구의 절충을 통해 점진적·전략적 근대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정치적 맥락과 근대화 전략의 상이함이 건축이라는 물리적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로, 건축이 근대국가 건설에 있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1. 신명호. (2014). 고종과 메이지의 시대: 무엇이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결정했나. (No Title).
2. 안상윤. (2019). 고종과 메이지. 휴먼필드.
3. 안창모. (2009). 덕수궁: 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동녘 출판사.
4. 이항우. (2023). 궁궐로 떠나는 힐링여행 덕수궁. 인문산책.
6. 김윤희. (2014). 대한제국기 덕수궁 석조전 건립과 서양 가구 유입. 문화재, 47(3), 4-23.
5. An, C. M. (2013).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⑧-Two Faces of The Empire, Seokjojeon and Joongwhajeon in the Imperial Palace. Korean Architects, 88-94.
7. An, C. M. (2013).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④-Encountering the Westen and Joseon's New Venture. Korean Architects, 72-77.
8. 박규태. (2018). 메이지신궁과 '화혼양재(和魂洋才)'. 한국 종교, 43, 205-230.
9. 김효진. (2016). 일본의 초기 근대 건축의 양상과 변모: 식민지 연구를 위한 전제로서의 식민모국 연구.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5, 248-281.
10. Perry, J. C. (1977). The Architecture of Modernization in Meiji Japan. Japan Quarterly, 24(4), 467.
11. 內田靑藏. (2013). “洋風” から “和洋併存” そして “和洋折衷” への展開の過程-日本近代初期における上流層の住宅様式の成立過程にみる国家的住宅様式の誕生に関する一試論. 동아시아문화연구, (53), 9-35.
12. 山崎鯛介. (2004). 明治宮殿の設計内容に見る「奥宮殿」の構成と聖上常御殿の建築的特徴.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69(586), 163-170.
13. 山崎鯛介. (2003). 明治宮殿の建設経緯に見る表宮殿の設計経緯.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68(572), 159-166.
14. 明治工業社(編). (1937). 建築篇. 明治工業社.
15. 小野木重勝. (1988). 近代和風宮廷建築における和洋折衷技法に関する研究 (昭和62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一般研究C)研究成果報告書, 研究課題番号 60550431). 豊橋技術科学大学工学部.
16. Ishikawa, M. Urban Landscape Planning of Palace Zone in Tokyo after Meiji Revolution.
17. Unknown author. (2021, November 21). Higashidamari-no-Ma of Meiji Palace [Photograph]. In Showa History Vol.2. Mainichi Newspapers Company. Public Domain.
18. An, C. M. (2013).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⑦-Joseon, Dreaming the Modern Korea. Korean Architects, 80-84.
19. 문화재청. (2005). 덕수궁 1910 평면도: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도면]. <https://www.heritage.go.kr>
20. 문화재청. (2011). 덕수궁 석조전 평면도 1층, 1936 [도면].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